

목포 '해안선 도보 길' 만든다

북항 회센터 ~ 삼학도 ~ 영산강 하구둑 17km

시, 내주중 사전답사... 웰빙 관광자원으로

최근 제주 올레길·자리산 둘레길 등을 중심으로 도보여행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해안을 따라 걸으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도보길 개발에 나섰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제주 올레길처럼 여행객들의 도보 명소길로 만들기 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포 지역 해안도로를 따라 17km 길이의

'목포 바닷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주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비롯해 여행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 바닷길' 사전답사를 실시한다.

도보길 예정코스는 북항 회센터에서 시작해 유달산 어민동산~낙조대~해안로~삼학도~갓바위문화타운



■ 목포 '해안선 도보길' 코스
북항회센터 목포시청
낙조대
성학도
평화광장
영산강 하구둑

운~평화광장~영산강 하구둑까지 17km 구간이다.

시는 주요 지점별로 특색 있는 이야기와 푸른 바다·산·쉼터 등이 잘 어우러져 있어 도보 여행길로는 제주 을레길에 버금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목포의 해안을 따라 걸으며 과도소리와 일제강점기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통한 학습장 활용뿐만 아니라 삼학도·갓바위 문화타운의 절새를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시는 웰빙시대에 걸맞은 도보 관광객들을 위해 도보 명소를 적극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앞장설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변에 이순신 장군이 100일 동안 머물렀던 고하도와 목포 수산시장 등지에 조성된 해안 도보 길과 만나게 된다"며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함평군, 10월까지 멧돼지·고라니 등 포획

함평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2010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함평군은 지난 1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분묘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 신고 건수가 60건에 이르는 등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을 운영키로 하고 함평군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 등으로 3개조(5인)

조)의 방지단을 편성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운영기간 동안 군 전 지역에서 멧돼지·고라니·까치·비둘기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포획 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획된 동물은 상업적 거래는 금지하는 한편 수렵인 자가소비·지역주민 무상제공 또는 소각·매장 처리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세 얼굴

"취약한 도로망 확충 최선"

윤상복 장흥군 부군수



"지금까지의 행정경험과 새로 운 도전정신으로 지역발전에 열려 성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윤상복(58) 장흥군 부군수는 "부군수는 외치보다 내치를 다스리는 어머니같은 위치"라며 "실·과·소간 업무조정 기능과 읍·면간 장벽없는 행정망이 유지되도록 산하 공무원들의 인화단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군수는 "전남 중부권 거점도시 발판을 위해 취약한

도로망 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출신인 윤 부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7년 승주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전남도 정책기획관·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충남부처장부=김용기기자 kykim@



'주렁주렁' 담양 고서 포도 수확 한창

4일 담양군 고서면 포도농원에서 포도수확이 한창이다. 고서 포도는 5kg 한상자에 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플러스부동산
(임대사업 전문업소)
년 수익률
10% 이상 책임보장
1억직접투자 년
1000만원 이상 소득 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업 계획 작성
전국: 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상장 T.062)226-3377
FAX.226-3369
(전셋, 남구 문화체육관 건너 블루上调상가)
내선 T.062)225-1772 월 011-8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관 건너 블루上调상가)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m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삼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삼무신도심 중심 상업·상거자구

※ 10층 신축건물로 코너

T.061-566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율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1 (FAX) 223-1772 월 011-8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관 건너 블루上调상가)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률 80%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 할인금액 6천만

■ 주변 소핑센터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지 상승 기대 최근 대림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장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은 친사를 받고 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탑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해남 열대작물 재배사업 가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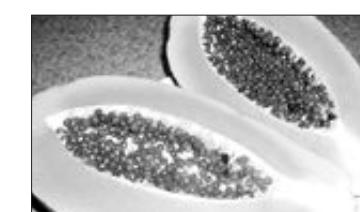
파파야·열대가지 등

농가 고소득 작목 부각

해남군이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진한 열대작물 재배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해 0.6㏊ 규모 밭에서 파파야와 구아바 등 열대 과일나무 실증재배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블루베리와 비파, 열대채소에 대한 시범 재배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 면적에 레몬 그라스·열대고추·열대가지·향채·줄伤病 등 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파파야



열대가지

양하게 재배하고 있다.

열대채소의 경우 줄伤病과 열대가지·오크라는 kg당 2000~3000원, 열대고추는 8000~1만원에 수매돼 10a(300평)당 수익이 1500만~17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하고 있다.

올해 열대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한 이영배(54·송지면)씨는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확보

하고 겨울철 온도조절 등 생산 재배기술만 익힌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열대 과수와 채소는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수도권으로 팔리고 있다"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주암·장흥 댐 주변 초등생 60명

원어민과 함께 즐거운 영어캠프

K-water 전남지역본부

K-water(한국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장흥 낭도국제교류원에서 주암·장흥·수어암 등 전남지역 댐 주변 초등생 60명을 대상으로 '댐 주변지역 초등학생 영어 캠프'(사진)를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영어 캠프'는 여름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평소 K-wa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짚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캠프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발표(speech)·상황극·골든벨 등 3개 종목의 영어 경진대회가 진행